

찬양을 살리는 찬양 세미나(2013.07.14 홍익교회 찬양 세미나 교재)

강사: 예수만나기 인터넷 방송국, seeJESUS.TV_김민호 목사
VER. 1.00

강의 순서 및 목차

1. 찬양에 대한 성경적 background
그리고 찬양의 대상과 내용
2. 찬양과 영성
3. 찬양의 흐름
4. ccm의 특성 요소와 치유적 요소
5. 성령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부르는 ccm
6. Breaking mind barrier/ 마음의 장벽 허물기
7. 찬양은 봉사인가 사역인가?

_서론적 위치에서의 고찰입니다.

1. 찬양에 대한 성경적 background 그리고 찬양의 대상과 내용

찬양자들은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행자가 타는 배가 어디로 가는 배인지 알고 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과 찬양을 드릴 성도들 사이에서 찬양 음악의 이해, 찬양의 내용, 찬양의 방법, 그리고 찬양자의 태도 등에 대한 찬양의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번 세미나는 잘 짜여진 이론적인 강의안으로 대신하는 세미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사항을 중심으로 강연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핵심은 그의 백성들(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노래하는 것이다.

찬양은(Praise)은 찬송(Hymn)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구약 성경에서 노래로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출15:1-18)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비하히롯 해변에 이르렀을 때 앞에서는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바로의 군대에 에워싸인 이스라엘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 찬송의 노래는 사사 시대에 “드보라의 노래”(삿5장)에도 나타나는데 이 노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간 팔려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찬양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며 찬양자는 하

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나의 노래(삼상2:1-10)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신을 심하게 격동시켜 번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한나는 만약 여호와께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를 드려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여자로서 대를 잇지 못하고 군박을 받는 절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뺨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찌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떠를 떠도다

5.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9.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뺨을 높이시리로다.“ **(삼상2:1-10)**

찬양은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성도 개인의 비참한 자리, 곧 진토에 앉은 가난한 자의 자리, 곧 거름더미에서 들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삼상2:8) 이러한 찬양의 노래는 신약시대에도 계속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게 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눅1:46-55)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자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늙어 아이를 못낳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사도 요한의 어머니)의 남편 사가랴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요한의 잉태를 예고할 때 병어리가 된 그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후 아들의 이름을 써달라고 서판을 내밀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후 혀가 풀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눅1:46-55) 사가랴의 찬송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노래했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노래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구원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한 모형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8일이 되어 전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시므온이(눅2:25)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눅2:29-32)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2:29-32)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성도들이 입술로 높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을 흔들며 찬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150:1-100

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찌어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찌어다
3.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4.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5.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본론적 입장에서의 고찰

2.찬양과 영성

찬양은 곡조가 붙은 음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노래하게 되는데 찬양이 영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영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깊이 고찰해보면 매우 난해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바를 본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본인은 영성이 뛰어난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자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찬양

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영성이라고 말할 뿐임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곡들은 멜로디가 있으며 또한 박자와 음정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이 영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음악과 세속적 음악 사이에서 찬양을 저울질 하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낱같은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영성, 또는 영감어린 찬양을 이야기 할 때 외적인 요소로 박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박자가 길고 느린 곡들이 박자가 짧고 빠른 노래보다 비교적 훌륭한 영성을 갖게 해줍니다. 박자가 길고 느린 노래는 합창을 하기에 적합하고 또 화음을 넣기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많은 무리의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성가대를 통해서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반대로 현대 산업 사회에서 대중 음악은 긴 박자의 음악들이 세분화되어 비트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세분화된 리듬 속에서 비트는 강렬해지고 화성과 음의 기복이 화려해지면서 대중음악은 오락성, 여흥성, 쾌락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했고 그들이 주요 음악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음악의 장르가 교회 내에서 ccm 찬양곡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CCM 찬양곡이 영성이 낮은 음악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나 대중음악의 요소들이 주는 쾌락적 기능 때문에 ccm의 생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영성어린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한다면 긴 박자와 느린 템포의 찬양곡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의 고저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것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템포의 경쾌하고 여흥적 성격의 찬양곡들도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찬양 사역자들은 대중음악의 속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합창하기 좋은 영성있는 찬양만 부를 수 없는 음악적 감성들 때문에 합창이 아닌 유니송으로 함께 부를 찬양곡이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CCM이 영성있는 찬양곡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곡들을 선곡해야 합니다. 교회 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영성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찬양의 흐름

아직도, 우리는 찬양을 클래식하게 해야 하느냐, 대중음악 같은 CCM 풍으로 해도 괜찮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분분해 보입니다. 20세기 초 흑인들에 의해 불려져 영감을 주었던 복음성가(Gospel song)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 음악을 이어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태동해 1970년대 이후 세계로 확산된 이후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교회 내에서 찬양 음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CCM은 빼놓을 수 없는 음악 형태입니다. 이 CCM에 대하여 특히 목사님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CCM은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CM은 부흥성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1873년 무디(Moody)의 부흥운동으로 시작한 부흥성가는 한국에서도 널리 불려졌으며 교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비틀즈, 롤링스톤즈, 아바 등의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POP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러한 서구 대중음악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 레코드 산업과 맞물려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중음악을 발전 속에서 한국 교회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가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으며 세대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이러한 대중 음악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코드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0년대부터 크리스찬 대중음악(CCM)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에 세계로 확산되었지요. 그러나 POP시장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반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중음악은 급성장해왔으므로 젊은이들은 대중음악에 익숙한 상태로 성장해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도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살 수 없었습니다. 대중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크리스찬들의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CCM도 발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CCM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CCM의 장르도 다양하고 그 내용도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내용에서부터 일상 신앙적 신앙 이야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음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CCM은 속된 장르라는 의심을 사면서 찬반에 휘말려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음악의 거대한 흐름 속에 CCM이 자리를 잡아왔으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청년들 역시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모두 대중음악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있고 대중음악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모두의 공통 코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음악적 공감코드를 통해서, CCM을 이해할 수 있고 또 CCM은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 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할 일이 있다면, 속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CCM을 거북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실이지만 가사를 제외한 외적인 음악의 형태만 가지고 성과 속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는 CCM의 가사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민호 목사**와 함께 하는 **CCM감상과 예배 찬양**으로서의 제안에서 발췌

새로운 CCM이 만들어질 때 젊은 이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음악보다는 가사를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젊은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ccm은 교회 공동체여 유익을 주는 ccm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찬양 가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바르게 만들어 지도록 교회 내의 청년들을 신앙적으로 먼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가사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고 목회적으로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신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의 가사를 가진 CCM의 경우 멜로디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불려질 때 문제가 됩니다. 경건

해 보지이지 않는 CCM을 부르는 것이 찬양자 자신의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의 젊은 찬양 인도자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장르의 CCM 찬양곡들이 그 속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의 가사가 그 곡 중심에 서 있을 때 CCM의 세속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첨언으로, 갈수록 ccm 찬양은 가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거하고 있다는 놀라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하고 애매한 표현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 역사의 분기점 B.C(Befor Christ: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年代史家)겸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엑시구스가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비롯된 연대(年代) 표시의 기준)는 그리스도에 신약의 시대를 알리는 기독교 연대 표기이므로 기독교 세계관을 배제하려는 안티 기독교 학자들은 'BCE(Before Common Era: 공동 연대 이전'을 뜻함)'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공립학교와 일부 영어권 학교에서 B.C를 대체하고 BCE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는 것이 사단의 시도임을 기억하시고 찬양에서 조차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찬양을 작곡하거나 작사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4.ccm의 독성 요소와 치유적 요소

ccm은 기독교 유행가라고 이야기 한다면 고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요라고 불리는 유행가는 긴 박자와 단순한 음계, 단순한 리듬의 노래에서 짧은 박자와 복잡한 음계, 그리고 음의 고저의 변화무쌍하고 화려한 음율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행가는 대단히 육체적이고 쾌락적 기능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이지 못하는데, 이러한 쾌락적 기능이 강조된 대중음악을 사용하여 찬양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ccm의 찬양은 여전히 위험한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찬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CCM의 내재하고 있는 독성적 요소는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요소와 쾌락적 기능이 강조된 기능적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은 영적인 호소를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여 정서적 감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음의 중저 고음부를 출력하는 인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음악 시스템을 통해 음악적 쾌락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영적이지 못하지만 인간의 정서와 정신에 상당한 치유의 능력을 선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 음악, 가요와 팝송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트래블에 시달리지 않으며 우울증을 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음악에 열광하는 것은 음악이 따듯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제공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그들의 삶의 복잡한 감정들을 정화시켜주고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한 방법 중에서 음악치료가 있는데 우울증 초기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면 음악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약물의 도움이 없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은, 성도들은 교회의 찬양예배를 통해서 상한 감정들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찬양예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찬양이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대중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어루만지고 음악적 쾌락을 제공하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의 장르를 가지고 찬양하는 CCM 찬양예배의 경우, 찬양예배의 찬양이 영적이기보다 감성적이되고, 또 음악적 기능에 치유된 감성적, 오락적 찬양이 될수도 있습니다. 예배 속의 찬양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에 대한 성도의 고백적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배제된 채 음악이 제공하는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찬양으로 치러지고 이러한 찬양이 지속될 때 교회 내에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교회 내에서 가능한 마이너 음악을 선곡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데 이유는 단조 음악의 CCM의 경우는 음악 그 자체가 우울한 감정들을 성도들 마음안에서 서서히 내리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래들을 계속 부르다보면 우울한 감정으로 자기최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찬양예배에서는 장조로 작곡된 찬양곡, 긍정적인 가사의 찬양곡, 소망적인 가사의 찬양곡들이 선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흥적이고, 감성적이며 쾌락적 기능을 수반한 CCM으로 찬양할 때 그 안에 내재된 독성적 요소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자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찬양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할 때 CCM과 감성적 음악 시스템이 제공할 때 오는 문제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자들은 기도해야 하며, 경건해야 하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찬양을 맡은 청지기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목회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 리더라기 보다 영적인 리더라는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 성령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부르는 ccm

ccm 찬양을 가사를 스크린에 투영된 것을 읽어나가면서 멜로디 중심으로 찬양을 부르다보면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머리로 부르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멋진 기교, 테크닉으로 정제된 모습으로 연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일치시키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공동체의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가슴으로 가사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 마음으로부터 불러야 합니다. 생각은 잠시 메모리 되어 있다가 증발해버리지만 가슴에 담은 찬양은 찬양 안에 담겨진 가사의 내용이 쉽게 증발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찬양으로 인해 얻는 성도 개인의 영적 유익이 클 뿐만아니라 교회의 통일과 일치에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찬양 예배가 영적인 유익과 역동적인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스크린 사용에서 올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자막과 배경 그림에 너무 화려한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찬양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찬양자는 그러한 스크린의 화려한 그래픽으로 인해 집중력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래픽에 신경을 쓰다가 가사를 따라 읽고 찬양을 끝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가사를 가슴에 담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찬양드리는 성도는 찬양이 끝날 때까지 스크린에 펼쳐진 그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가사 배경에 풍경이나 동영상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풍경이나 여행지 같은 화면이 나온다거나 가사 내용과 무관한 배경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찬양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자의 생각은 바로 흩어져버립니다.

또 찬양 예배를 역동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 가사를 일부만 디스플레이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노래방 자막 방식입니다. 찬양자는 아주 좁은 의미의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찬양을 방해합니다. 가사는 가능한 한 프레이즈 단위로 노출되어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슴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고백이 되어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6. Breaking mind barrier/ 마음의 장벽 허물기

세미나 참석한 모두 무대에 나와 실연하는 시간

7. 찬양은 봉사인가 사역인가?

찬양팀원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을 통한 봉사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역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찬양 세미나에서 약간은 우스개 소리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봉사란 자신의 일을 다 한 후 남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도 사역은 바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에게는 사명감이란 것이 마음 안에 존재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찬양팀원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여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성도의 연합과 일치, 결속에 기여하며 교회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자이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끝]

이문서의 버전은 1.00입니다. 이문서는 경우에 따라 사위버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